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5.11.(수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	책임자	과 장 김진숙 (044-202-8850)
		담당자	사무관 임경희 (044-202-8852)

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에 운전면허 검사 강화를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

1. 주요 기사 내용

- 5.11.(수) 서울경제, “전화 한통으로 라이더 안전조치 끝? 고용부 전시행정에 배달업계 부글” 기사 관련

-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... 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당혹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.
- 배달 라이더 등록 때 업체별로 진행하는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기존 '면허 진위 및 취소 확인'에서 더 나아가 '정지 여부'까지 조회해 등록을 제한 하라는 내용이었다. ... 면허 검사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이다.
- 산업 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노동부의 취지이지만, 업체들은 면허가 정지 상태인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할뿐더러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.
- 특히 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제공하지 않은 채 '알아서 하라' 식의 주문을 전화 한 통으로 끝내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.

2. 반박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에 배달 라이더 운전면허 정지 여부 조회 및 등록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
- 오히려, 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이 배달종사자의 운전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
- 일부 기업에 현황을 문의한 것이며, 종사자 안전 강화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배달플랫폼 기업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음
- 보도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람